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62

지혜의 왕

솔로몬

(열왕기상 3:1~10:13)



솔로몬왕은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처럼 거만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을 도와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왕이 된 자신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칠 것이다.
제물이 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것이다.”**

솔로몬왕은, 무려 천 마리아 되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제물이 타면서 하루 종일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너의 기도를 들었단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 보거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러자 솔로몬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저는 아직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의 대답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대신 지혜를 달라고 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줄 것이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까지도
또 앞으로도 없을 거란다.”**

솔로몬은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죠.
하루는 여인 두 명이 솔로몬왕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아주 분하고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 여인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저 여인과 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거의 같은 날에 저희 둘 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 여인이 자기 아기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기가 그만 죽어버렸지요.
그러자 저 여인은, 죽은 아기와 저의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하고는 제 소중한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흑흑..”**

그러자 다른 여인이 질세라 말했어요.

**“아닙니다. 폐하. 이 여인은
사실과 거꾸로 말했습니다.
살아 있는 아기가 제 아기가 맞고 죽은 아기가
이 사람의 아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아기는 한 명인데 두 여인 모두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을 하니 지켜보던 모든 신하들이 황당해했어요.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죠.

그런데 그때 솔로몬왕이
모두가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여보라, 칼을 가져오너라!
두 사람 모두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니 아기를 칼로 잘라서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게 옳다.”

왕의 끔찍한 판결에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방금 왕께서 아이를 둘로 자르라 하셨나?”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실 분이 아닌데
장난을 치시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가엾은 아기가 화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든
말려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처음 말을 꺼냈던 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여인은 온몸을 떨더니 겨우 입을 열어 애원하기 시작했죠.

**“안 됩니다... 제발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어도 좋으니...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아 주세요... 흑흑...”**

하지만 다른 여인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공평하신 판결입니다.
저희 둘 다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둘로 나누어 주시지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누가 진짜
아기의 어머니인지 알 수 있었어요.
왕이 말했죠.

**“아기를 죽이지 마라. 이 세상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가 죽는 걸 놔두겠느냐.
처음에 말한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솔로몬왕의 지혜로운 판결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왕 앞에서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죠.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기, 이스라엘은 가장 강해졌어요.

또 이웃 나라 왕들과 이스라엘과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양의 금을 바쳤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이 아닌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정도였죠.

이웃 나라 ‘스바’의 여왕 역시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왕은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솔로몬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세상에... 예루살렘은 듣던 것보다도
더 화려한 도시구나!”

왕이 먹는 음식과 왕궁 사람들이 차려 입은 옷,
금으로 덮인 물건들
무엇보다도 거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여왕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와 보니 당신의 지혜와 부유함은 듣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당신 같은 분을 왕으로 두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군요.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었고
솔로몬왕은 떠나는 여왕에게 많은 선물을 챙겨 주었어요.

이렇게 온 세상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지혜의 왕’ 솔로몬!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할 수 있었어요.

과연 솔로몬왕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